2022 ISSUE REPORT

이슈보고서

지역연구팀

VOL.2022-지역이슈-13(2022.08)

2022년 필리핀 대선 분석과 신정부의 주요 정책 전망

CONTENTS

Ⅰ. 2022년 필리핀 대선 결과 분석

Ⅱ. 신정부의 주요 정책 전망

Ⅲ. 신정부의 외교 관계 및 한국과의 협력 전망

Ⅳ. 시사점

작성

책임연구원 이지혁 (6255-3614)

j.lee@koreaexim.go.kr

※본 보고서의 내용은 담당 연구원의 주관적 견해로, 한국수출입은행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한국수출입은행 | 해외경제연구소

< 요 약 >

Ⅰ. 2022년 필리핀 대선 결과 분석

- 지난 5월 9일 치러진 필리핀 선거 결과 제17대 필리핀 대통령으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아들인 전직 상원의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가, 제16대 부통령으로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장녀이자 다바오(Davao) 시장인 사라 두테르테(Sara Z. Duterte)가 각각 당선됨.

- 마르코스-사라 후보가 대선에서 손쉽게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유력 정치 가문의 결합, 두테르테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유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이미지 정치와 아버지 마르코스 집권 시절 미화 등을 꼽을 수 있음.

Ⅱ. 신정부의 주요 정책 전망

- 마르코스 대선 후보는 선거 기간 슬로건으로 '통합의 리더십'과 '경제 부흥'을 내걸었지만, 명확하고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지 않아 신정부의 정책 방향 예측이 쉽지 않음. 다만 인프라 사업, 마약과의 전쟁, 독립적인 외교 노선 등을 포함해 많은 부분에서 두테르테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전망됨.

- 마르코스 대통령은 7월 25일의 첫 국정연설에서 2028년까지 빈곤율을 한 자릿수(9%)로 낮추고 2025년까지 정부부채를 GDP 대비 60% 아래로 낮출 것을 약속함. 아울러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정부의 경제 및 재정 목표를 발표함.

Ⅲ. 신정부의 외교 관계 및 한국과의 협력 전망

- 전문가들은 마르코스 대통령이 친중 노선을 견지하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함. 미국과 거리를 뒀던 두테르테 전 대통령과 달리 마르코스는 미국과 중국 모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실리적 외교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됨.

- 필리핀 신정부는 한국과 방산·국방 등 전통적 분야뿐만 아니라 원전·에너지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강화를 약속함. 특별히 마르코스 대통령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기 위한 방책으로 원자력 발전에 관심을 보였으며, 오랜 시간 운영이 중단된 바탄(Bataan)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위해 우리 정부와의 원자력 발전 협력을 희망함.

Ⅳ. 시사점

- 친중 노선의 외교, 대규모 인프라 사업, 마약과의 전쟁 등을 포함한 두테르테 정부의 핵심 정책과 사업이 신정부에서도 시행될 전망임. 다만, 외교는 더욱 실리적인 방향을 추구하고, 인프라 사업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굴하기보다는 이미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완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약과의 전쟁은 예방·교육·재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됨.

- 아버지 마르코스 재임 시절을 경제적 황금 시대로 묘사한 점,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경제를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강조한 점, 첫 국정연설에서 거시적 경제 목표를 구체적 수치로 제시한 점을 고려할 때 신정부는 경기회복과 경제 발전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됨.

- 한국 기업들은 기 구축된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정부의 정책 방향을 조속히 파악하고, 새롭게 추진될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 입찰 경쟁에서 경쟁국 기업 대비 비교우위를 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Ⅰ. 2022년 필리핀 대선 결과 분석

전직 대통령들의 자녀들이 대통령과 부통령에 당선

- 지난 5월 9일 필리핀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포함해 상원의원, 하원의원, 광역·기초단체장, 지방 의회 등 총 18,180개의 선출직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음. 필리핀 정부는 1987년 헌법에 따라 6년마다 5월 두 번째 월요일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고 있음.

-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모두 6년이지만, 대통령은 연임이 불가하고 부통령의 경우 1회 연임할 수 있음. 총 24명인 상원의원의 임기는 정·부통령과 마찬가지로 6년이며, 3년마다 절반(12석)씩 새로 선출되고 1회 연임할 수 있음. 총 316명인 하원의원의 임기는 3년이며 2회까지 연임할 수 있음.[1)]

- 대통령 후보가 부통령 후보를 러닝메이트로 지명하지만, 각각 분리된 투표를 통해 선출되므로 정치적 성향이 다르거나 소속 정당이 다른 정·부통령이 선출될 수 있음.

- 선거 결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아들인 전직 상원의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R. Marcos Jr., 이하 마르코스)[2)]가 제17대 필리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며, 제16대 부통령으로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장녀이자 다바오(Davao) 시장인 사라 두테르테(Sara Z. Duterte)가 당선됨.

- 마르코스 대통령은 아버지 마르코스[3)] 재임 시절에 북일로코스(Ilocos Norte) 주의 부지사(1980~83년)와 지사(1983~86년)를 역임했으며, 1986년 '피플 파워 혁명(people power revolution)'이라 불리는 시민 혁명 때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과 함께 하와이로 망명했음.

- 마르코스 대통령은 1991년 제11대 대통령 코라손 아퀴노(Maria Corazon Cojuangco Aquino)의 허락으로 귀국 후 북일로코스 주에서 하원의원(1992~95년, 2007~10년)과 지사(1998~2007년)를 번갈아 역임했음. 2010년에는 상원의원(2010~16년)에 당선됐으며, 2016년 필리핀 정·부통령 선거에서 부통령 후보로 나섰으나, 근소한 차이로 레니 로브레도(Leni Robredo)에게 패하였음.

- 전문가들은 마르코스-사라 후보가 대선에서 손쉽게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유력 정치 가문의 결합, 두테르테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유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이미지 정치와 아버지 마르코스 통치 시절에 대한 미화 등을 꼽음.

- 마르코스와 사라는 각각 약 60%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2위 후보에게 큰 표차로 승리했음. 두테르테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온 레니 로브레도 부통령은 28%의 득표로 2위를 기록했고, 복싱 영웅 매니 파퀴아오(Many Pacuiao) 상원의원과 프란시스코 도마고소(Francisco Moreno Domagoso) 마닐라 시장은 각각 6.8%, 3.6%를 득표함.

---

1) 연임 제한이 있지만, 총 재임 횟수나 연수를 제한하지는 않기 때문에 선출직 정치인이 연임 제한에 걸리는 경우 다른 선출직에 출마했다가 다시 본래의 선출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음.
2)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은 마르코스 주니어는 필리핀에서 애칭인 '봉봉(Bongbong) 마르코스'라고 불리는데, 봉봉은 사탕을 의미함.
3) 필리핀의 제10대 대통령이자 독재자였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는 1965년부터 1986년까지 장기 집권했으며, 1986년 시민 혁명으로 권좌에서 물러나 하와이로 망명하여 그곳에서 1989년 사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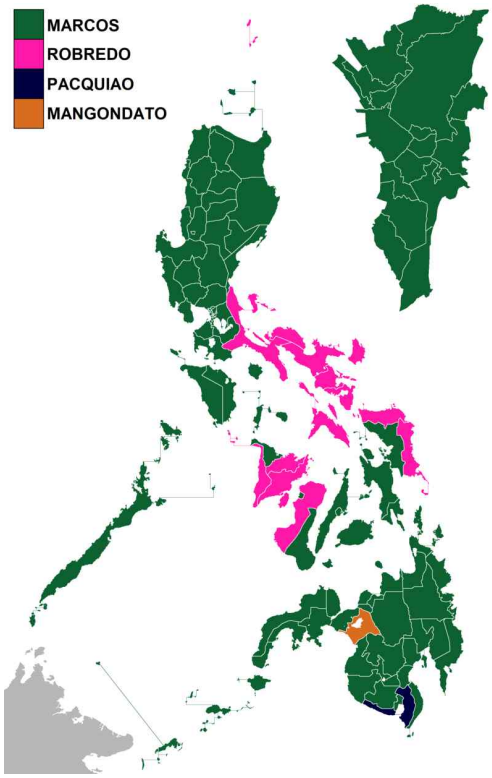
- 북북 필리핀의 유력 정치 가문 출신인 마르코스와 필리핀 남부 지역의 신흥 정치 명문가 두테르테 가문의 사라가 연합해 양쪽 가문의 지지층을 결집시킴으로써 전국에서 고른 득표율을 획득할 수 있었음.[4] 마르코스는 총 81개의 주 중 61개의 주에서 승리했으며, 2016년 대선(부통령 출마) 때 레리 로브레도를 지지했던 28개 주가 2022년 대선에서는 마르코스를 지지함.

- 마르코스는 2016년 대선에서 두테르테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면서 무소속으로 부통령에 출마했으며, 두테르테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2016년 필리핀 국립묘지인 마닐라 영웅묘지에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안장을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독재자 마르코스의 복권을 승인함.

- 마르코스는 사라와의 연합뿐만 아니라 필리핀의 유력 정치 가문인 에스트라다·마카파갈·아로요 가문[5]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마르코스는 강력한 카리스마와 철권통치로 악명높았던 아버지와 달리, 오래전부터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자신을 부드럽고 미래 지향적인 이미지로 포장하고 선거 캠페인 동안 TV토론과 공식 인터뷰를 지양하고 틱톡과 유튜브 등을 통해 재미있고 세련된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주력함.

[그림 1] 필리핀 대선 후보 지역별 득표 현황



자료: INQUIRER.NET
주) 우상단에 확대된 지역은 메트로 마닐라임.

4) 마르코스는 처음 러닝메이트로 두테르테 전 대통령을 지목하였으나,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고심 후 부통령 출마를 포기함.
5) 모두 대통령을 배출한 가문임.

[표 1] 필리핀 정·부통령 후보 및 득표율

대통령 후보	소속	득표 수	득표율	비고
Bongbong Marcos(당선)	**PFP**	**31,629,783**	**58.77%**	**전직 상원의원**
Leni Robredo	무소속	15,035,773	27.94%	부통령
Manny Pacman Pacquiao	PROMDI	3,663,113	6.81%	상원의원
Isko Moreno Domagoso	AJSYON	1,900,010	3.59%	마닐라 시장
부통령 후보	**소속**	**득표 수**	**득표율**	**비고**
Sara Duterte(당선)	**LAKAS-CDM**	**32,208,417**	**61.53%**	**Davao 시장**
Kiko Pangilinan	LP	9,329,207	17.82%	상원의원
Vicente Tito Sotto	NPC	8,251,267	15.67%	상원의장
Doc Willie ONG	AKSYON	1,851,498	3.60%	심장병 전문의

자료: 필리핀 언론 종합
주) 3% 이상 득표한 후보만 기록함.

마르코스 가문의 부활

- 아버지 마르코스가 독재와 부정으로 필리핀 정치에서 축출된 지 36년이 지난 시점에 아들 마르코스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마르코스 가문은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새롭게 부활하는 계기를 마련함.

- 마르코스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자신은 독립 후 (필리핀이) 이룩한 것이 별로 없다는 걸 깨달은 한 인물을 알고 있는데, 그는 위대한 잠재력이 있지만 가난했던 국민이 거주했던 땅에서, 그 일(위대한 업적)을 해냈다"라고 아버지를 평가하면서 "자신도 그것을 이룩할 것"이라고 선언함.

- 동 연설에서 마르코스 대통령은 전임자들과 비교해 아버지 마르코스 재임 시절 더 많고 우수한 도로가 건설됐으며, 더 많은 식량을 생산했다고 언급함.

- CNN은 마르코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가문의 과거가 아닌 자신의 행동으로 평가해 달라고 요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대선 캠페인 동안 '다시 일어서자(rise again)'라는 구호를 사용해 아버지 재임 시절을 '황금 시대'로 여기는 일부 유권자의 향수를 자극했다고 분석함.

- 비평가들은 마르코스 가문의 부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가문에 대한 평판과 이미지를 리브랜딩(rebranding)한 노력의 결정판으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캠페인이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함.

- 필리핀 유권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30대 이하 젊은 층은 아버지 마르코스의 독재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임.

- 한편 작년 11월부터 필리핀의 여러 시민단체는 마르코스가 공직 시절(1982~85년) 소득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을 근거로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선관위에 청원서를 제출했으나[6], 선관위는 "마르코스가 반복적으로 소득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고의로 탈세를 저지르지는 않았다"라고 밝히며 이를 기각함.

6) 필리핀 내국세법에 따르면, 세금 관련 범죄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음.

Ⅱ. 신정부의 주요 정책 전망

전임 정부의 주요 정책 계승

- 필리핀의 대선은 정당이나 이념보다 인물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향이 있으며, 필리핀 대통령의 권한은 다른 대통령제 국가에 비교해 매우 막강한 특성이 있음. 따라서 대통령의 개인 성향과 정책 선호는 필리핀 정치와 외교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침.

- 마르코스는 선거 기간 슬로건으로 '통합의 리더십'과 '경제 부흥'을 내걸었지만, 명확하고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지 않아 신정부의 정책 방향 예측이 쉽지 않음. 무엇보다 대선 토론 참여를 거부하고 인터뷰에 잘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 방향이 언론에 잘 노출되지 않았음. 다만 인프라 사업, 마약과의 전쟁, 독립적인 외교 노선을 포함해 많은 부분에서 두테르테 정부의 주요 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전망됨.

- 마르코스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제공하는 대선 공약은 매우 간단하며,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표 2] 마르코스 대선 후보의 주요 공약

분야	공약 사항
보건 및 코로나19 대응(Health and COVID-19 Pandemic)	• 코로나19로 인한 의료 시스템의 과부하를 개선하기 위해 코로나19 경증환자의 자가치료 추진과 의료계 종사자 및 가족 대상 무료 약 처방 추진 • 경제 부흥과 삶의 정상화를 위한 집단 면역 강화
반군 진압(Anti-Insurgency)	• 민다나오 지역 반군 진압 자금 확대 및 진압 강화
법질서(Law and Order)	• '마약과의 전쟁' 정책은 유지하되, 예방·교육·재활에 중점을 둔 접근 방식으로 전 정부와 차별화 실시
환경 및 기후변화(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태풍 및 다른 재해에 대한 대비 촉구 • 대규모 산림 복구 약속, 엄격한 기준에 근거한 산림 보존 및 관리 대책 수립 • 대기 오염 문제 중점적 관리
재난-재해 위험 감소 및 관리(Disaster Risk Reduction & Management)	• 자연재해에 대비한 대피소 설치 강화, 재난 위험을 사전에 알리는 의사소통 강화

자료: Vote Pilipinas

-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사라 부통령과의 러닝메이트 제휴, 마르코스 가문의 정치적 성향 등을 고려할 때 지난 정부의 주요 정책이 현 정부에서 계승될 것으로 전망됨.

- Fitch Solutions는 경제를 바라보는 마르코스 대통령의 관점이 두테르테 전 대통령과 닮았다고 평가함.

- 취임식 연설에서 마르코스 대통령은 전임자의 인프라 프로그램이 지속될 것이며, 이미 시작된 프로젝트를 예정대로 완료할 것임을 선언함. 인프라 건설의 연속성은 전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중국을 비롯한 파트너 국가들의 우려를 완화하는 발언으로 평가됨.

- 2017년 4월 두테르테 행정부는 필리핀을 2022년까지 상위 중소득국에 진입시키는 거시적인 경제정책으로 '두테르테노믹스(DuterteNomics)'를 발표했는데, 동 정책은 필리핀의 열악한 인프라가 사업환경 개선에 주요 걸림돌이라고 판단하고 도로·교량·공항·항만·수자원 등 전반적인 인프라 건설을 골자로 하는 '빌드-빌드-빌드 프로그램(Build-Build-Build program)'을 핵심 사업으로 설정함.

- 필리핀의 공공사업 및 고속도로부(Dept. of Public Works and Highways, DPWH) 차관에 따르면 빌드-빌드-빌드 프로그램의 112개 대표(flagship) 프로젝트 중 올 6월까지 18개 사업만이 완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연말까지 추가로 12개 사업이 완공될 예정이고, 나머지 사업은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마르코스는 많은 논란이 됐던 마약과의 전쟁을 계승하지만, 전 정부와 달리 초점이 교육·보건·재활에 맞춰질 것을 분명히 함. 두테르테 행정부 때 설립된 재활센터를 활용하고 민간 영역과 비영리 단체를 참여시켜 더 많은 시설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 마약과의 전쟁에서 가장 많이 논란이 된 법 집행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마약 거래에 연루된 경찰의 기소를 강화할 것임을 밝힘.

• 취임식 연설에서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난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미국 및 유럽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독립적인 외교 노선을 구축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언사와 태도를 지양할 것임을 밝힘.

-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2016년 취임 후 수시로 동맹인 미국을 비판하는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친화적인 외교정책을 견지해 왔음.

[표 3] 필리핀의 주요 인프라 사업 현황

구분		프로젝트 수	비용(백만 페소)
진행 상황*	완공	8	94.6
	건설 중	77	3,506.3
	착수 준비 중	27	1,086.3
	합계	112	4,687.2
지역**	전국	13	159.6
	Luzon	57	3,644.6
	Visayas	16	339.3
	Mindanao	26	543.7
분야**	운송 및 이동	76	4,273.4
	도시 개발	12	156.4
	수자원	10	84.9
	ICT	8	84.9
	보건	4	106.0
	에너지	2	46.4

자료: DPWH; NEDA; Senate Economic Planning Office
주)* 2022년 1월 3일 기준, **2021년 5월 12일 기준

경제 부흥과 일상 회복에 초점을 둔 정책

- 마르코스 후보는 대선 캠페인 동안 경제 부흥과 일상 회복을 위한 집단 면역 강화를 강조했으며, 농업과 관광 분야에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대응할 필요성을 제기함. 아울러 경제 회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기업 수의 95%를 차지하며 고용의 60%를 담당하고 있는 영세 및 중소기업의 시급한 회복이라고 강조하며, 중소기업의 회복 방안으로 세금 감면 및 면제를 언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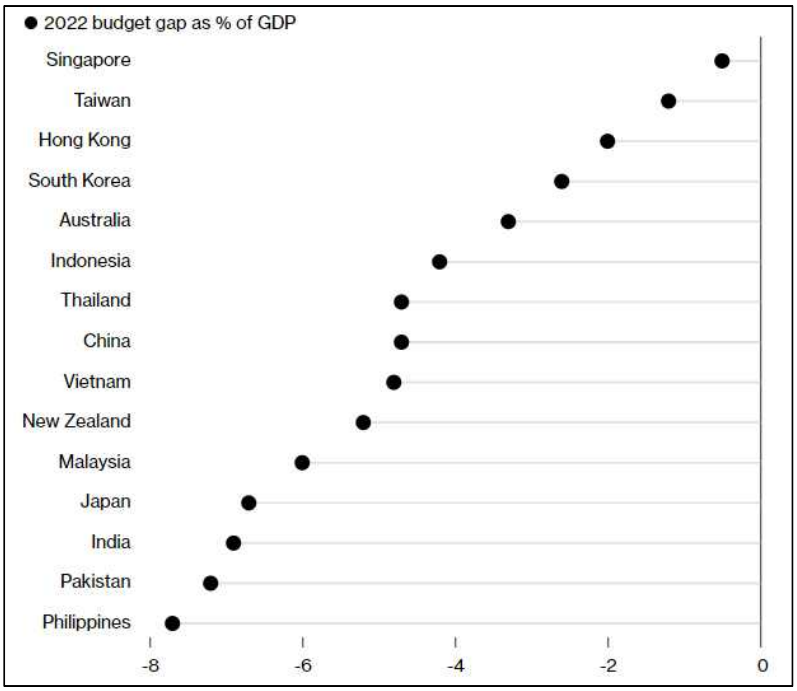
- 필리핀은 코로나19 발발 이전 6% 이상의 견조한 경제성장을 구가했으나,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했던 2020년 –9.6%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음. 필리핀 경제는 2021년 2분기부터 빠르게 회복하고 있으며 올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8.3% 성장한 것으로 집계됨(필리핀 통계청).

- 경제의 빠른 회복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인하 조치와 코로나19 대응에 투입된 지원금 등으로 2021년 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8.5%로 확대되었으며, 2021년 4/4분기 정부부채는 GDP의 60% 이상으로 늘어났음.

- 블룸버그는 올해 필리핀의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GDP의 7.7%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스리랑카를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임. 아울러 2022년 7월 현재 정부부채는 GDP의 63.5%로 추정됨. 세계은행은 필리핀의 빠른 경제 회복을 고려할 때 현재의 부채 수준이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향후 부채가 계속 증가하면 경제성장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함.

- 한편, 필리핀의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4%로 목표치인 2%~4%를 상회하고, 6월 한 달 동안의 상승률은 6.1%로 최근 4년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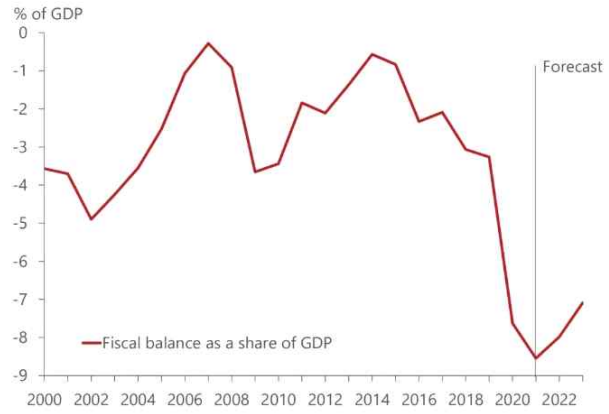
[그림 2] 2022년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재정적자 규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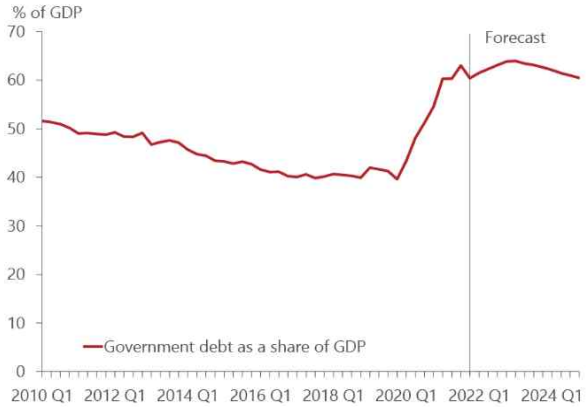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Survey

[그림 3] 필리핀의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및 정부부채 비율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자료: Oxford Economics

- 5월 31일 필리핀 재무부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추진한 일련의 세제 개혁이 세수 증대에 큰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하며, 코로나19로 발생한 채무 상환과 재정수지 적자를 완화하기 위해 신규 세금을 부과하고 예정된 소득세 감면의 연기를 제안함. 그러나 마르코스 당선인은 재정 정책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기는 것에 난색을 보이면서 코로나19로 손해를 본 중소기업, 농업 분야, 운송업계 등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세금 감면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서민들의 조세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동시에 재정 문제를 해결할 방안 모색을 지시함.

- 6월 30일 취임한 마르코스 대통령은 7월 5일 첫 번째 국무회의를 재무부 장관, 필리핀 중앙은행 총재, 경제사회계획 수석으로 구성된 소위 경제팀으로부터 필리핀 경제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는 것으로 시작함.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우리가 다뤄야 할 가장 중요한 영역은 경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모두가 따라야 할 핵심 정책은 경제 관료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고 발언함.

- 첫 회의에서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억제, 식량 안보 보장, 교통 부문 지원, 대면 수업 재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함.

- 7월 12일 두 번째 국무회의에서 마르코스 대통령은 필리핀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인프라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도시국가인 싱가포르가 제한된 자연환경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관광 분야에서 앞서나가고 있는지를 언급함. 아울러 그는 보라카이 같은 관광지의 의료 시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하와이와 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예로 설명함.[7)]

한 자릿수 빈곤율 달성과 공공부채 축소를 위한 중기 목표 설정

- 마르코스 대통령은 7월 25일 첫 국정연설을 통해 2028년까지 빈곤율을 한 자릿수(9%)로 낮추고 2025년까지 국가채무를 GDP 대비 60% 아래로 낮출 것을 약속함. 아울러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정부의 경제 및 재정 목표를 발표함.

7) 마르코스 대통령은 7월 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서 두 번째 국무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음.

- 2021년 상반기 기준 필리핀의 빈곤율은 23.7%로 코로나19 발발 이전인 2018년의 21.1%보다 소폭 상승함. 한편, 정부부채는 2022년 1분기 기준 GDP의 63.5%로 지난 17년래 가장 높은 수치임.

- 국정연설에서 언급된 구체적인 목표는 ①2022년 경제성장률 6.5~7.5% 달성, ②2023~28년 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6.5~8% 달성, ③2028년까지 9% 또는 한 자릿수 빈곤율 달성, ④2028년까지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까지 감축, ⑤2025년까지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을 60% 미만으로 축소, ⑥2024년까지 최소 4,256달러 이상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달성과 상위 중소득국 지위 획득 등임.

독재 정권 회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

• 마르코스 대통령은 친서민 행보를 통해 대선 승리 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독재 정권 회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아울러 마르코스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동안 쌀 보조금 지급과 주요 식품에 가격 상한제를 적용하여 가계 부담을 덜겠다는 공약을 제시함.

• 마르코스 대통령은 취임식 다음 날인 7월 1일 심각한 물가 상승 상황을 고려해 올 4월부터 시행한 마닐라 무료 버스 탑승 서비스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앞서 당선인 신분이었던 6월 20일 서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물가와 식량 문제를 직접 담당하기 위해 자신이 농업부 장관직을 겸할 것을 공표함.

- 마르코스 대통령은 자신의 장관직 겸직 이유에 대해 정부가 농업 분야의 어떤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는지를 국민에게 알릴 필요성과 함께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함이라고 밝힘.

- 마르코스 대통령은 향후 6개월 동안 농업 생산량을 증진할 것을 공언하면서, 동남아 국가들이 식량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식량의 수입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함.

• 한편, 7월 1일 현지 재벌 기업인 산미겔(San Miguel)이 추진 중인 블라칸(Bulacan) 경제특별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함. 자신의 누이이자 필리핀 상원의원인 이미 마르코스(Imee Marcos)가 발의한 블라칸 경제특구법은 지난 5월 필리핀 상·하원 의회를 통과했으나, 마르코스 대통령은 "중복 특혜와 국가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며 거부권을 행사함.

-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 이미 필리핀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기업 회복 및 세제 혜택법(CREATE)'[8]을 적용하고 있어서 경제특구를 건설할 특별한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결과적으로 이중 특혜를 제공하여 법인세 징수 문제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임. 아울러 최측근인 누이와 재벌이 연루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파악됨.

8) 2021년 발효된 'CREATE'는 법인세 인하, 별도의 만료기한에 대한 명시 없이 느슨하게 운영되던 경제자유구역 소재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소득세 면제) 부여 기한 설정, 세금 인센티브 부여 기한과 범위 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Ⅲ. 신정부의 외교 관계 및 한국과의 협력 전망

미-중 사이에서 실리적인 외교 노선 추구

- 전문가들은 마르코스 대통령이 친중 노선을 견지하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함. 미국과 거리를 뒀던 두테르테 전 대통령과 달리, 마르코스는 미국과 중국 모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실리적인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됨.

- 5월 24일 당선인 신분이었던 마르코스는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인도 등 4개국 외교사절의 예방을 마친 후 가진 언론 간담회에서 미국과의 군사협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두테르테 전 대통령 시절 필리핀은 오랜 동맹인 미국과는 거리를 두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했음. 2016년 취임 첫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을 받아 베이징을 방문한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이제 워싱턴과 결별할 때"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이후 중국과 남중국해 천연자원 공동탐사 계획을 세웠고 필리핀의 낙후된 인프라 개발을 위해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음.[9)]

- 2020년 2월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미국이 마약과의 전쟁을 지휘한 경찰청장의 비자를 취소하자 미국과 체결한 방문군협정(VFA)[10)]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음. 이후 2차례에 걸쳐 협정 종료 시한을 연장했다가 국내에서 비난이 확산하자 결국 지난해 7월 30일 협정을 계속 유지하기로 입장을 선회했음.

- 중국의 지원으로 계획된 많은 프로젝트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과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국내에서 반중 정서가 확산하자 집권 후반기에는 미국과의 관계 회복을 시도했음.

- 필리핀은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개념의 다자간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참여를 선언했으며, 이를 통해 교역, 중소기업, 디지털 경제, 공급망, 기후변화, 인프라 분야의 협력 강화를 희망함.

- 대선 기간 여러 언론과 전문가들은 마르코스 후보를 친중 성향의 인물로 분류하면서 마르코스의 대선 승리가 중국의 승리가 될 것으로 전망함.

- CNN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마르코스가 당선될 경우 필리핀의 친중 행보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고,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세력 대결을 펼치고 있는 미국의 '대중 해상 포위망'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고 예측함.

- 마르코스 신정부 동안 중국과의 관계 강화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서는 전임자와 달리 강경한 태도를 고수할 것으로 전망됨.

9) 두테르테 행정부의 외교정책은 경제적 실익을 위해 한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협력관계를 분산한다는 의미에서 헤징(hedging) 외교로 평가받고 있음.
10) 양국이 1999년 체결한 VFA는 필리핀에 입국하는 미군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군사 훈련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함.

- 중국의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 nine dash line)' 주장과 관련하여 필리핀 정부가 2013년 1월 제기한 국제 소송에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는 2016년 7월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으나, 중국 정부는 PCA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응수함.

- 마르코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중국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분명히 밝힘. 그는 영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유리한 판결이 있으며, 영토 권리를 계속 주장하기 위해 이 판결을 사용할 것이다. 이것은 주장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영토이다"라고 말함.

신정부와의 외교 관계에서 전략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미·중 경쟁

- **[미국 정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11일 마르코스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외국 정상 중 첫 번째로 전화를 걸어 축하 메시지를 전달함.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필리핀 동맹을 계속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당선인과 협력하는 한편, 코로나19와의 싸움, 기후 위기 대처, 경제 성장 촉진, 인권 존중 등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양자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힘.

- 6월 9일 마르코스 당선인을 예방한 미 국무부의 웬디 셔먼(Wendy Sherman) 부장관은 두 사람이 양국의 동맹, 심화하는 경제 관계, 인권 증진,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유지'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힘.

- 한편, 미국 고위 관리는 마르코스 대통령이 미국 입국 시 미국 법원이 마르코스 가문에 부과한 3억 5,300만 달러(약 4,580억 원) 상당의 벌금에 대해 외교적 면책특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힘.

- 바이든 대통령은 마르코스 대통령 취임식 미국 경축특사단의 단장을 역임한 세컨드 젠틀맨(second gentleman)[11]인 더글라스 엠호프(Douglas Emhoff)를 통해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미국 방문 요청 편지를 전달함.

- **[중국 정부]** 중국 정부는 마르코스 행정부 동안 전임 정부의 친중 노선이 이어지기를 희망하고, 동시에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아시아에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미국을 견제하려는 차원에서 미국보다 더 적극적인 외교 행보를 보임.

- 6월 30일 왕치산(王岐山) 중국 국가부주석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마르코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으며, 일주일 후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동남아 5개국 순방 중 마르코스 대통령을 예방함.

- 동 예방에서 왕이 외교부장은 남중국해 갈등을 두고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대화와 소통을 강화해 민감한 문제를 잘 처리하자"라면서 "양국 협력은 해상의 불일치를 넘어서는 것이고, 개별적인 논쟁이 양국 협력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함. 아울러 "중국은 필리핀과 우호 협력의 큰 방향을 견지하고 서로 돕는 좋은 이웃, 서로를 잘 아는 가까운 친척, 좋은 동반자 관계가 되기를 원하며, 양국의 협력을 강화해 양국관계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함.

11) 미국 최초의 여성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Kamala D. Harris)의 남편을 지칭하는 용어임.

- 이에 대해 마르코스 대통령은 왕이 부장에게 "중국은 필리핀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중요한 발전 파트너로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적인 협력을 펼쳤다"라고 말하면서, "중국은 필리핀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추진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필리핀의 인프라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감사의 뜻을 표함. 아울러 "필리핀은 양국 간 정치·경제·무역·교육·문화 등 광범위한 분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의미를 끊임없이 풍부히 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달함.

- 아울러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중국해 문제는 양국관계의 주류가 아닌 만큼 양측의 협력을 제한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이는 대선 후보 시절의 강경한 어조와는 차이가 있는 발언으로 중국과의 현실적인 외교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됨.

동남아 국가들은 아세안 내에서 필리핀의 적극적 역할 기대

- 필리핀은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집권 동안 종종 아세안과 다소 거리를 두고 비협조적이거나 독단적인 행보를 보였음. 2021년 4월 24일 아세안이 미얀마 군부 쿠데타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아세안 회원국에 긴급 정상회의 참석을 요구했을 때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이를 공개적으로 거부한 것은 필리핀이 아세안에서 스스로를 '셀프 추방(self-expulsion)'한 대표적 사례임.

- 동남아 국가들은 마르코스 대통령이 아버지 마르코스 재임 시 설립된 아세안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기를 기대함.

- 주미 필리핀 대사는 마르코스 대통령이 미국을 비롯하여 중국, EU 등으로부터 국빈 방문을 요청받았지만, 아세안 국가를 가장 먼저 찾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힘. 필리핀 외교부가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첫 국빈 방문국으로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짐.

원전을 비롯한 광범위한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 희망

- 한국 정부는 마르코스 대통령 취임식에 대통령 경축특사단을 구성하여 취임식에 참석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친서 및 축하인사를 전달함. 여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7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동 특사단은 6월 30일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고 7월 1일 신임 대통령을 예방함.

- 동 예방에서 양측은 잠수함 건조를 포함한 방산·국방 등 전통적 협력과 함께 원전·에너지 등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확대 및 강화하기로 약속함.

- 아울러 양측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한-필리핀 간 포스트 코로나 인적교류 회복, 관광 분야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논의함.

- 마르코스 대통령은 화석연료 의존성을 줄이기 위한 방책으로 원자력 발전에 관심을 보이면서, 바탄(Bataan) 원자력 발전소[12] 운영 재개를 위해 한국의 전문가·기술자의 방문을 요청하는 등 양국 간 원전 분야 협력을 희망함.

12) 1976년 미국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 Electric Company LLC)가 필리핀 루손 섬 남부에 건설하던 발전소였으나, 착공 후 3년 만에 미국 스리마일 원전 사고 여파로 공사가 중단됐음. 이후 1986년 2월 아버지 마르코스 대통령이 시민 혁명으로 권좌에서 물러나고, 동년 4월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건설이 중단되었음.

- 올 2월 두테르테 행정부는 에너지부 산하의 17개 기관으로 구성된 '원자력 프로그램 기관 간 위원회(NEP-IAC)'의 권고에 따라 원전 사업 재개를 승인하는 행정명령(EO) No.164에 서명함. NEP-IAC는 원전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에 관한 예비타당성 연구를 수행할 예정임.

- 알폰소 쿠시(Alfonso Cusi) 전 에너지부 장관은 2020년 상원 청문회에서 "한국과 러시아 전문가들에게 의뢰한 결과 원전 재가동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라고 밝힌 바 있음.[13)]

- 한수원은 2017년부터 필리핀 에너지부와 바탄 원전 사업 재개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2019년 바탄 원전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음. 바탄 원전은 고리 2호기와 같은 원자로형을 사용해 한수원의 사업 참여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됨.

- 한수원은 동 발전소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제출하면서 섬이 많은 필리핀 특성상 기존의 대형 원전보다 전력 공급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소형모듈원자로(SMR) 설치를 제안함.

- SMR은 기존의 대형 원자력 발전소와 달리 배관이 없고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 안에 배치한 중·소형 원자로임. 원자로 냉각제 배관 파손으로 인한 방사능 유출 가능성이 작아 일반 원전보다 안전하고, 발전용수가 적게 들어 내륙에도 건설할 수 있으며, 건설 비용이 적고 건설 기간이 짧은 장점이 있음.

[그림 4] 바탄(Battan) 지도

자료: Google Map

13) 필리핀 내에서 원전 가동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강한데, 이들은 바탄 원전이 지진 활동이 잦은 화산 지대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노후화된 원전 설비 업그레이드에 최소 4년 이상의 시간과 10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 한편,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지난 4월 27~29일 마닐라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열린 '국제방산전시회(Asian Defence & Security, ADAS 2022)'[14]에 한국 방산기업들[15]과 한국관을 구성하여 전투기, 잠수함, 전술차량 등 국산 최신 무기를 홍보함.

- 현재 필리핀은 동남아 지역 내 한국의 최대 무기 수출 대상국으로, 지난해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펴낸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한국은 2016~20년 중 영국(14%), 필리핀(12%), 태국(11%) 순으로 많은 무기를 수출함.

- 행사에 참석한 델핀 로렌자나(Delfin Negrillo Lorenzana) 당시 국방장관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한국에서 FA-50(경공격기)과 호위함 등을 도입했는데, 추가로 수입할 품목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며 "한국의 신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방산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힘.

- KAI는 필리핀 공군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를 만나 FA-50PH의 업그레이드 방안과 항공기 가동률 제고를 위한 후속 지원 사업을 제안함. 필리핀 공군은 지난 2014년 FA-50PH 12대 계약을 체결했으며 2017년 마라위(Marawi) 전투에 동 전투기를 실전 배치한 경험이 있음.

[표 4] ADAS 2022에 참여한 한국의 주요 방산 기업과 전시 상품

참가 기업	전시 상품(무기)
한국항공우주산업(KAI)	△KF-21(전투기) △FA-50(경공격기) △KT-1(기본훈련기) △수리온(헬기) △소형무장헬기(LAH) △상륙공격헬기(MAH)
LIG넥스원	△함대함 유도무기 △경어뢰 △대함유도탄 방어유도탄 △130mm 유도로켓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중거리·중고도 지대공 요격체계
한화시스템	△함정전투체계(CMS, 함정에서 외부 목표를 확인하고 사격·지휘 등을 통제하도록 설계) △위성 △통신 △다기능레이다(L-SAM MFR)
현대중공업	△원해 경비함(필리핀 수출을 타진 중)
대우조선해양	△1,400톤급 'DSME 1400PN' 잠수함(*필리핀 해군 맞춤형으로 개발)
기아	△소형전술차량(기갑수책차량) △미니버스

자료: 국방신문(2022) 외 다수 언론매체 종합

14)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등 50개국 200여 개 기업이 참가함.
15) 기아, 대우조선해양, LIG넥스원, 풍산,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시스템, 현대중공업 등 7개 방산 대기업들은 각각의 단독 부스를 설치했으며, 보고, 빅텍, 억세스위, 우성씨텍, 이오시스템, 지우정보기술 등 6개 중소기업은 연합해 중소기업관을 설치하고 한국 무기체계를 홍보함.

Ⅳ. 시사점

마르코스 행정부는 대체로 전임 행정부의 정책 노선을 계승할 전망

- 대선 과정에서 사라 부통령 후보와 연합해서 승리한 마르코스 대통령은 향후 국정 운영에서 두테르테 가문의 공조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며, 많은 부분에서 전임 행정부의 정책을 계승할 전망임.
- 친중 노선의 외교, 대규모 인프라 사업, 마약과의 전쟁 등을 포함한 두테르테 정부의 핵심 정책과 사업이 신임 정부에서도 단절 없이 시행될 전망임.

- 다만, 외교의 경우 두테르테 전 대통령과 달리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리적 외교를 추구하고, 상대국을 자극하는 수사를 지양할 것으로 예측됨.
- 인프라 사업의 경우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보다는 이미 '빌드-빌드-빌드 프로젝트'를 통해 건설 중이거나 계획 단계에 있는 사업을 완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임.
- 마약과의 전쟁은 마약 범죄자를 초법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보건·교육·재활에 방점을 두고 있음.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은 경기 회복과 시민의 일상 회복에 방점

- 대선 기간 특별한 정치적 이념이나 정책 구상을 발표하지 않은 점, 아버지 마르코스 재임 시절을 경제적으로 번영했던 황금 시대로 묘사한 점,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경제를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강조한 점, 첫 국정연설에서 거시적 경제 목표를 구체적 수치로 제시한 점을 고려할 때, 마르코스 행정부는 집권 초기에는 경기 회복과 경제 발전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됨.

- 부패한 독재자의 아들이라는 논란을 잠재우고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시민들 사이에 팽배해 있는 우려(권위주의 시절로 회귀)를 불식시키기 위해 경제 발전과 서민을 위한 정책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됨.
- 마르코스 대통령은 첫 국정연설에서 2028년까지 한 자릿수 빈곤율과 2025년까지 정부부채를 GDP 대비 60%까지 감소시킬 것을 공언하는 한편,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더 이상 봉쇄(lockdown)를 시행할 계획이 없으며 학교 수업 정상화를 위해 대면 수업을 시행할 것임을 밝힘.

실리적인 외교 노선 추구

- 마르코스 대통령은 친중적인 인물로 분류되지만, 미·중 양 국가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실리적인 헤징 외교를 추구할 것으로 전망됨.

- 헤징 전략은 미래의 안보 위협 가능성에 대비하여 하나 이상의 선택 가능한 전략적 옵션을 유지하는 것임. 두 강대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거나, 상대국과 양자 간 협력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상대국이 제기할 수 있는 잠재적 안보 위협과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타 국가와의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식을 취함.

-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중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미·중은 필리핀 신정부와의 외교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경쟁적인 외교전을 벌이고 있음.

원전 및 방산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 희망

- 한국 정부는 대통령 취임식 경축특사단을 파견하여 마르코스 대통령을 예방하고 방산·국방·원전·에너지 분야의 경제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함. 마르코스 대통령은 한국과 원전 분야 협력 강화를 희망함.
- 필리핀 정부는 고질적인 전력난, 높은 전력 수요, 기후변화 등을 고려하여 석탄 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원전을 비롯한 대체 에너지 개발을 통해 전력난을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무엇보다 원자력 발전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며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음.
- 한국이 바탄 원전 재개 사업을 수주할 경우 필리핀과 소형모듈원전(SMR) 협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최근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방위산업체들이 동남아와 중남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데, 필리핀은 방위 산업과 관련된 교류가 매우 활발한 국가임.
- 우리 기업은 기 구축된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정부의 정책 방향을 조속히 파악하고, 새롭게 추진될 프로젝트에서 경쟁국 기업 대비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 경주가 필요함.

[참 고 문 헌]

국방신문. 2022. "필리핀 달려간 'K-방산'...풍산 등 13개사 단체로 동남아시장 개척." 4월 29일.

신민금·정재완. 2022. "2022년 필리핀 대선 결과 평가와 주요 정책 방향 전망." 세계경제 포커스 Vol.5(18)

정재호. 2022. ""독재? 그런 거 안 해요"...필리핀 마르코스의 '민심 달래기 행보'." 7월 3일.

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 2015. "에너지용어: 중·소형원자로(SMR) 및 SMART."

중앙일보. 2022. "마르코스 대권에 찜찜한 美...CNN "필리핀 친중 행보 가속화" 5월 9일.

외교부. 2022. "필리핀 신임 대통령 취임식 경축특사단 파견(6.28-7.1.) 결과." 보도자료.

인민망한국어판. 2022.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중 왕이 외교부장 접견." 7월 7일.

최경준. 2020. "미-중 갈등과 동남아시아: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의 대응전략과 중간국 외교." 아태연구 27(4).

AIF. 2022. "[월간정세변화] 글로벌 에너지 대란에 동남아에서도 대안으로 급부상하는 원자력 발전."

Bloomberg. 2022. "Marcos Names Himself Agriculture Chief to Tackle Food Cost." June 20.

BusinessMirror. 2022. "BBM Eyes 'Jab to Jobs' in Covid Recovery Program." January 29.

Caballero-Anthony, Mely. 2022. "A Marcos Returns to Power in the Philippines." Brookings. May 13.

CNN. 2022. "Marcos Holds First Cabinet Meeting." July 5.

Filipino Times. 2022. "Bongbong Marcos Refuses to Cut Workforce, Reducing Jobs in PH Gov't-Tulfo."

Inquirer.net. 2022. "Bongbong Marcos May Visit ASEAN Countries First." July 13.

Jakarta Post. 2022. "Marcos Jr and ASEAN. July 6.

Philippine Information Agency. 2022. "PBBM Pushed for More Tourism-Driven Infra Projects." July 13.

Philippine New Agency. 2022. "Execs Optimistic of 'Build, Build, Build' Continuity." February 8.

Philstar. 2022. "A Quick Look at Bongbong Marcos and His 'Unity' campaign." February 27.

Rappler.com. 2022. "DOF Urges Marcos: Postpone Income Tax Cuts, Slap New Taxes, Slash VAT Exemptions." May 25.

Rappler.com. 2022. "FULL TEXT: President Marcos' Inaugural Speech." June 30.

Rappler.com. 2022. "FULL TEXT: President Marcos' State of the Nation Address 2022." July 25.

Regan, Helen. 2022. "New Philippine President Marcos Jr. Praises Dictator Father During Inauguration Address." CNN. June 30.

Reuters. 2022. "Philippine Inflation Near 4-year High, Cements Prospect of More Rate Hikes." July 5.

Reuters. 2022. "Philippines Mulls Fertiliser Deals with China, Russia, Others." July 19.

Vote Pilipinas. 2022. "Presidential Candidate: Marcos, Bongbong."

Uravel. 2022. "New Philippine President Faces a Tricky Economic Balancing Act."